우리는 행복할꺼야
우리가 만약 시대사조를 거슬러가는 용기를 얻게 된다면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9)

목표

- 우리의 도시와 국가안에, 개인 혹은 사회 집단 전체에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봅시다.
- 약한 이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차원으로 활동하여 봅시다.

어땠나요?

환대, 각자가 살았던 경험들과 어려움들에 대한 대화와 소통의 공간. 그리고 지난 마지막 모임 때 있었던 목표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땠나요?

모임을 여는 활동

비디오와 묵상: 불의에 대항하여

영상: "침묵"

https://www.youtube.com/watch?v=0_pC1EIS3eA

소요시간: 3분 17초, 묵상을 합쳐 약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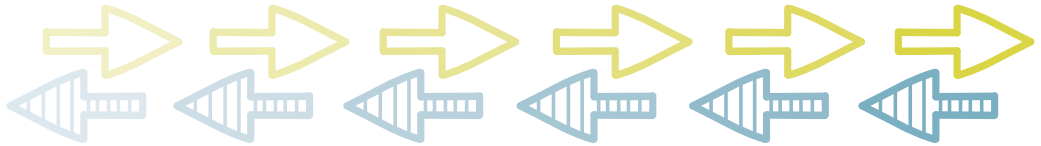
준비물: 비디오를 보기 위한 장비, 각 그룹을 위한 종이와 펜

전개방법: 비디오를 보기 전에 보조자는 청소년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 안에서 참여자들은 그들에게 "시대사조를 거슬러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약 10분 간 갖도록 합니다.

이후에 비디오 "No Hungry short film"를 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 소년이 친구들과는 반대로 굶주린 이에게 도움을 주고 친구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비디오를 본 후에 그룹들은 다음의 질문에 비추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을 겪어본적이 있나요?
-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친구들을 거슬러 행동해야만 한 적이 있었나요?
- 네 주변에 보이는 불의한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과 맞써 싸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렇게 지내요

마태오의 생일파티에 초대받았어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마태오에게 비디오게임을 선물하기로 결정하였어요. 우리는 모두 그것에 동의하였는데, 그 게임은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 비디오게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할까? 나는 그것을 선물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한 친구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어요. 이 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루카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며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였어요.

같은 날 저녁에 나는 집에서 이것을 이야기했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사지 않을 4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번째, 나 스스로의 혼란스러움. 두번째,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점. 세번째, 무의식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피해들. 네번째, 마태오의 부모님께서 아마도 이 선물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실 거라는 점. 즉시로 나는 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에 대해 말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나는 다시 이 질문을 친구들에게 했는데 반대하는 친구들,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 그리고 루카도 다른 게임을 사는데 동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선물을 사러 갔을 때, 그 금지된 비디오게임은 가게에 있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것이 비록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의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그 분의 응답처럼 느껴졌어요. 생일날 저녁에 마태오가 우리의 선물을 뜯어보았을 때 기쁨으로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내가 바라던 게임이야. 고마워!" 나에게 정말 환상적인 저녁이었어요!

V. 이탈리아

우리는 행복할꺼야!
만약 시대사조를 거슬러가는 용기를 얻게 된다면...

내가 가끔 만나는 친구들 몇몇은 큰 가게에서 뭔가를 훔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에 모두가 동조하지는 않는데, 몇몇 친구들은 단지 그룹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것을 해요. 처음 나에게 훔치는 것을 제안했을 때, 나를 놀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싫다고 말했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복음구절을 살기 때문에 훔치지 않을 거라고 나의 생각들을 설명했어요.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내게 같은 제안을 했어요. 나는 내가 신뢰하는 젠들의 일치로부터 힘을 받아서 항상 이를 거절했어요. 최근에 나를 놀리던 그 그룹의 친구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L. 이탈리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대사조를 거슬러 가는 우리의 걸음

"행복하여라,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사조를 거슬러 가는 이러한 걸음은 사회 안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 받고 있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그저 미지근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편안한 삶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마태 16,25) 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리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경우에 권력과 세속적 욕심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생산과 소비, 사회적 조직화로 인해 사회가 인간 사이의 유대를 건설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원해진 사회는 정치, 미디어,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조직을 진정한 인간적-사회적 발전을 방해하는 함정에 빠트립니다. 산상수훈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것은 인기도 없고 의심이나 비웃음을 얻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과 정의의 길을 걷기 위해 견디는 피곤함과 고통들, 즉 십자가는 인간적인 성숙함과 성화의 샘입니다. 신약성경은 고통에 대해 말할 때 복음을 위해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박해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참조 사도 5,41; 필립 1,29; 1코린 1,24; 2 티모Tm 1,12; 1 베드로 2,20; 4,14-16; 사도 2,10).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박해에 대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 대함으로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성인은 괴짜이거나, 모든 일에 초연하거나 또는 자신의 약점, 단점, 흠 등에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도들이 모든 백성의 호감을

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2,47; 참조 사도cfr 4,21.33; 5,13). 한편 몇몇의 관리들은 그들을 찾아 박해합니다. (참조사도 4,1-3; 5,17-18).

박해는 단지 과거의 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중상모략과 위선 등 더 교묘한 방법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신앙을 손상시키는 시도나 우리를 비웃음 거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복음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90-94항.

시대사조를 거슬러가는 증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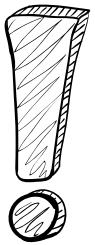
파라과이: "악이 존재하지 않는 땅"
합동전화 2017년 4월 22일

http://collegamentoch.focolare.org/2017/04/22/paraguay-yvy-marane-la-tierra-sin-mal/

유니스 : 정의를 위해 사는 범죄학 (케냐)
합동전화 2017년 2월 10일

http://collegamentoch.focolare.org/2017/02/10/eunice-una-criminologa-che-vive-per-la-giustizia-kenya/

우리는 행복할꺼야!
만약 시대사조를 거슬러가는 용기를 얻게 된다면...



한번 시도해봅시다!

이 산상수훈을 우리 도시와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다루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치된 세상을 위한 하나의 길을 따라 걷기를 시작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서 불의에 대항하는 것을 볼 때 용기를 북 돋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며 다른 사람들도 제로헝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로 적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의해야할 점들과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다음 모임에서 우리의 경험을 나눌 때까지 우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세상과 우리 주변의 불의(정의롭지 못한) 한 상황을 보았나요?

우리 도시나
다른 나라의
어두운 부분에 색을 입히기
위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나요?

보조자 공간

모임 후 평가하기

- 어떤 분위기 였나요? 다시 만나는 기쁨과 서로 간의 충분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나요? 모든 이를 존중하는 경청과 열린 나눔의 분위기가 있었나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활동의 제안 예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혁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나요?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다음 모임을 위해, 우리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특별히 예민하게 다루어야 할 환경이 수면 위로 나타났으며, 이것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까요?
- 우리 보조자들은 다음 모임 때까지 어떻게 청소년들을 동반하고 그들의 결심을 도울 수 있었나요?